

스티브잡스 시대, 그리고 88만 원 세대

지난 달 서울의 북쪽 대학에서 한국의 젊은 대학생이 “나는 대학을 거부한다, 이제 대학과 자본의 거대한 탐에서 내 뒷의 돌맹이 하나가 빠진다. 탐은 끄떡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지만 균열은 시작되었다.” 라는 대자보를 붙이고 자발적 퇴교를 결정했다. 도미노 현상일까? 다시 이번엔 서울의 남쪽 대학에서 제 2의 대학 거부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이다음 남쪽 대학에서 떠질까? 스티브잡스와 우리의 대학생들을 같은 비교선상에서 논하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 모두 대학을 부정하면서 장의성 없는 대학 교육을 질타했는데 이러한 흐름의 태동을 보면서 곧 한국의 스티브잡스가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

대학은 자격증 장사 브로커가 못 된다

스티브잡스를 연구해보면 양부모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리드 대학교에 입학등록은 하였으나 1학기만 수강하고 중퇴한다. 학교는 중퇴했지만 대학교에 머물면서 다양한 강좌를 청강했다고 자신이 밝혔다. 그러한 대학 시절 다양한 청강 경험이 컴퓨터 관련 박사도 아니지만 컴퓨터 회사를 창업하게 하고, <토이 스토리> 등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하고 아이팟 아이패드 등을 세상에 내놓아 21세기 IT 산업의 창의적 리더로 IT 정보화 세기의 아이콘이 되었다.

스티브잡스의 대학시절을 보면 미국에서 유명 대학도 아니고 관련 학문의 박사 학위도 없고 그저 평범한 미국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발상을 할까라는 많은 의구심을 갖는다. 분명 한국과 미국이라는 사회적 환경이나 풍토가 다르지만 유명 대학 졸업장이나 박사 등의 학위가 기업이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인재와 직접 매치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연구 실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우수한 인재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팀을 3년 동안 특허 관리를 하면서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관리 평가해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말하는 소위 SKY라든가 박사학위 등 꼭 연관될 거라는 선입관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왔다.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을까? 의문이 되어서 서울대학교 자체에서 서울대학교 학생의 자질을 연구 발표한 결과를 보니 평가항목 많은 부분에서 우수한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본인들이 창의적인가? 라는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내놓은 결과를 보았다. 그래서 직접 서울대 졸업생을 만나 설문한 결과 정말 창의적이라고 말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삼성전자의 임원 비율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 학교들 출신이 50% 미만이라는 신문기사가 나왔다. 연구했던 결과와 묘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았다. 엇그제 급기야 국내 대학이 1년에 배출하는 박사 인원이 1만 명을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제 대학은 자격증 장사 브로커가 못 된다. 박사 학위는 옛날 대학 졸업장보다 못한 희소가치로 전락했다.

이제 대학이 다시 깨어나야

미국 가치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컬럼비아대 리 볼린저 총장, 노벨상 수상자 해럴드 바머스, 선마이크로시스템 창업자인 스콧 맥닐니 등 각 분야의 쟁쟁한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하버드를 노크했다가 떨어진 사람이다. 리 볼린저 총장은 하버드대 진학 실패를 통해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실패가 인생을 좌지우지하

한국의 IT 산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스티브잡스가 가지고 나왔던 아이팟·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의 향방에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서 스티브잡스의 지난 행보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우리나라도 스티브잡스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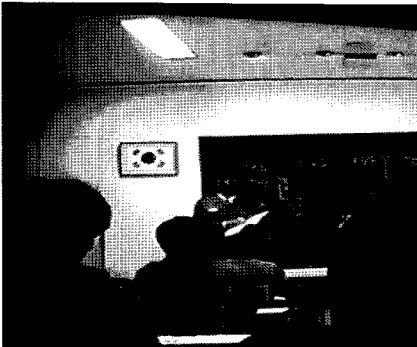


게 두지 말라”며 “다른 사람의 평가대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큰 실수라고” 말했다. 만일 앞에서 열거한 사람들이 하버드의 학사모를 썼다면 그렇게 좋은 업적을 만들었을까? 그동안 연구한 결과로 보면 창의력이란 유명대학의 학사모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유명 대학의 학사모가 주는 영광스럽고 안위한 고정관념을 던져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내적 동기부여가 더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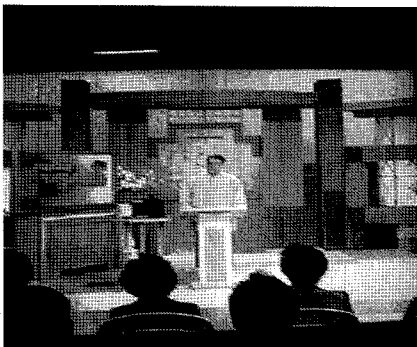
대학은 이제 자격증 브로커가 아니라 좋은 인재를 모셔와 장학금을 주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 바로 세상에 나가서 멋있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인재의 산실이 되어야지 해가 다르게 오르는 등록금 인상으로 수많은 젊은이를 허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이 있겠지만 경험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외국대학에서 특허출원 등록한 많은 기술들을 평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었다. 그런데 모두가 사업성이 있어서 또는 산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특허들을 매입·결정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들 대학이 이러한 돈을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니 우수한 인재를 끌어오는데 장학금으로 쓴다는 사실이었다. 대학이 기업이나 국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성공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쓴다는 것이다. 외국 대학은 좋은 인재를 장학금을 주면서 유치하는데 우리는 좋은 인재를 뽑아서 바보를 만든다거나 대학을 거부한다는 대자보를 붙이게 한다.

그동안 15년 동안 연구원 또는 엔지니어 3만 명 넘게 창의력 및 특허관련 교육을 직접 강의했다. 자랑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한 인재를 현장에서 직접교육 시킨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다. 모든 신입사원 또는 연구원은 특허교육이나 창의력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만들어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력을 보면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이 우리의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이 창의력이 풍부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나만이 느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스티브잡스, 한국의 빌게이츠 등 창의적 산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의 아이콘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대학이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산실로 탈바꿈해야 한다.



〈신입사원 강의〉



〈MBC 초청강의〉

창의력은 다양성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히트한 상품이나, 스티브잡스가 가지고 나온 아이패드 등 세계를 주름잡는 신상품들의 공통점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이나 아이템들이 모두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켰다는 것은 시제품 발표 후 그 구성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창의력이란 기존의 다양한 기술을 잘 분해 결합시켜 새로운 대안(제품, 또는 문제점 해결)을 창출해내는 능력이다. 한 분야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의 전문분야의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묘안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익사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사실인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신입사원 중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특허를 어떻게 내는지 관찰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3년 안에는 그럴싸한 특허를 못 내고 있었다. 그래서 왜 박사가 좋은 특허를 못 내느냐고 질문을 하니 “학위 받은 분야는 매우 좁은 분야로 전체를 아우르며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창출하기는 단시간에 어렵다”고 실토했다.

여기서 스티브잡스의 학창생활을 다시 한번 보자. 대학은 1학기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남아서 많은 청강수업을 받았다는 본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스티브잡스는 분명 한 분야의 학문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강좌를 청강하면서 공부했다. 그 중 캘리그래피(calligraphy)의 청강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데 영감을 주었다고 했다. 스티브잡스의 짙막한 대학생활이 자신의 인생 모든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양한 학문과의 접촉은 그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정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스티브잡스는 대학 졸업장을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았고, 좋은 학점을 따는 기계가 되려고도 하지 않았다. 단지 다양한 학문을 접하기 위해서 여러 강좌를 청강하면서 캠퍼스 밖에서 펄 꿈들을 꾸고 있었다.

대학은 창의력의 산실이 되어야

다시 우리 88만 원 세대의 대학을 보자. 대학 스스로가 88만 원 세대를 만들었다고 본다. 기계적으로 외우거나 기타 온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점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오면 왜 바보가 되고 적응도 못하여 대학원 또는 유학을 가겠다고 아우성이며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보라면 머뭇거리고 있는지! 대학생 모두 다 스티브잡스 빌게이츠가 될 수 없겠지만 이제는 서서히 나와야지 않을까?

이제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고 더욱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발전 초창기는 단순 노동에 의한 산업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경기고 서울대라는 간판은 커다란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가 되어서 유능한 경영인이 될 수 있었다. 그

러나 산업이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고 창의력이 풍부해야 하는 스티브잡스 시대에는 그런 간판은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스개 소리밖에 내놓지 못한다. 731부대가 독립군 부대였다는 응답에 많은 사람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희극배우 같은 코미디언이라고 질타했다.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재를 뽑으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 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 잘한다는 사람은 시험에 나온 것만 잘 알지 나머지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암기하여 시험친지 2주일 지나면 교육내용 70% 이상이 뇌에서 사라진다는 뇌 과학의 보고서를 보면 학점이나 간판으로 인재를 뽑았다면 21세기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의력이란 단순한 임기응변식 암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그동안의 교육 또는 경험 등 살아있는 지식으로 큰 시야를 가지고 각색했을 때 감동을 주는 작품이 나온다.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면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서해교전 현장에서 해병대 복장을 하고 사진 찍으며 군복무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는 사진을 찍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사진이 감동을 줄까? 이순신 같은 그 동안의 경험과 경륜의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들고 열두 척의 배로 적선 333척과 마주쳐 이겼다. 나를 따르라!” 한다면 이런 장면은 명장면이 되어서 국민 모두를 결속시키고 남을 것이다.

이제 대학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세계 최초의 창의적 철갑선으로 백척간두 누란의 경지의 민족을 구했던 성웅 이순신 같은 창의적 인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의 부화장으로 탈바꿈 해야 할 것이다. **민국발명진흥회**



박진준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기업기술 기치명가(한)
삼성전자 반도체 IP팀 수석연구원
특허법 및 창의력 개발 강사
KAIST EMDEC 신제품 개발 강사
창의력 이야기 외 다수 저술인